

식품의약국 “52개 식품 표준 폐지”

식품 성분·제조에 변화
잼·치즈 등 규정 완화될 듯

식품의약국(FDA)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2개의 식품 표준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조림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제과류, 마카로니 제품 등 다양한 가공 식품의 성분 및 제조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잼’이나 ‘프리저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5%의 설탕과 45%의 과일을 포함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표준 폐지로 잼 제조업체는 더 이상 이 비율을 지킬 필요가 없을 수 있다.

FDA는 성명에서 “기존 규정은 소비자의 기대와 무관하게 식품 제조업체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가정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낡은 식품 규정을 없애고 있다”며 “이는 불필요한 관료적 장벽을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정리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1939년에 도입한 식품 표준

FDA는 1939년 ‘정직성과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기대되는 식품 특성, 성분, 제조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례성 표준을 도입했다. FDA는 이러한 규정이 식품 산업의 창의성과

신제품 개발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농업과학대학이 언급한 사례에 따르면 ‘골비’ 치즈는 비살균 원유로 제조되고 35도 이상에서 60일간 숙성해야 한다. 반면 ‘몬터레이 잼’ 치즈는 반드시 살균 우유로 제조해야 한다. 이런 과도한 세부 규정이 시장의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유제품 업계 환영 분위기

이번 조치는 특히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다. 식품 전문 매체 ‘푸드 다이브’에 따르면 폐지 대상에는 채소 국수 제품, 인공 감미료를 넣은 통조림 과일 카테일, 바닐라-바닐린 추출물 등도 포함된다.

또한 FDA는 사카린이나 소듐 사카린으로 인공 감미한 통조림 과일 7종을 포함한 총 11가지 통조림 과일·채소 규격을 직접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제품은 이미 미국 내 유통에서 사라진 상태다.

FDA는 이번 결정이 250개 이상의 식품 표준 전반을 재검토한 결과라며,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는 기준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자원을 가장 필요한 분야에 배분해 국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 메디케어 청구 관련 조사 연방 법무부, 형사·민사 조사 진행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연방 법무부의 형사 및 민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회사 측이 24일 공식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 의료사기 전달 부서가 메디케어 사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법무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미디어 보도를 통해 메디케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자발적으로 법무부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무부의 공식 형사 및 민사 요청에 대응하고 있으며, 회사의 관행에 대해 전적인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나이티드헬스는 SEC 공시에서 “회사의 비즈니스 관행의 정당성을 확신한다”며, “법원이 임명한 모니터가 10년에 걸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 조사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납세자의 돈을 신뢰성 있게



▲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 연방 법무부의 형사 및 민사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본사, 사진=shutterstock

관리하고 비즈니스 관행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몇 달간 불거진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연이은 악재에 또 다른 타격을 더했다.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브라이언 톰슨 CEO의 피격 사망 사건은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불만을 촉발시켰다.

올해 5월에는 CEO가 돌연 사임했고, 이어 월스트리트저널이 메디케어 청구 의혹, 잠재적 반독점 위반, 메디케어 청구 관행 조사와 관련한 민·형사 수사를 보도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2025년 상반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종목 중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발표 후 오전 거래에서 주가는 1.5% 추가 하락했다.

☑ 누구나 맞게 되는 **65세.**
☑ 누구나 갖게 되는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다룰 수 있습니다!

플랜 선택에서 약 값 절약,
치과, 한의원, 골프 등
꼭 필요한 알짜배기 혜택까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T.714.469.4905
메디케어상담



하혜연
시니어 보험 전문
CA LIC. #4019293